

긴급 이사회 개최

“정해운 명예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

10월 18일 16대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위한 긴급이사회가 본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후 4시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안두희 소송 건이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뉴질랜드해외연수 교육과 아시아양봉대회 참가인원, 제36회 양봉인의 날 행사 준비사항이 보고되었다.

아시아양봉대회의 참가인원은 홍보단 20명, 일반회원 63명으로 2010년 아시아 양봉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양봉인들의 가장 큰 행사인 ‘양봉인의 날’ 행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번 긴급이사회는 지난번 이사회 때 논의된

선거관리위원을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참석한 임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전기현 회장의 지휘아래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장 선임은 장시간 토론 끝에 정해운 명예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임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조기에 선임한 이유는 2개월 전부터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후보자가 발생, 임원/지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30일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 조치이다.

자조금 추진위원회 개최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자”

10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본 협 회의실에서 자조금 구성을 위한 자조금추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남진선 추진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자조금추진위원회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양봉농가의 홍보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몇 시간에 걸친 홍보방법에 대한 난상토론 끝에 지회총회, 협회총회, 양봉인의 날 행사에서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깨띠를 착용하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결정되었다.

자조금추진위원회는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자’는 모토를 세우고, 협

회차원에서만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조금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지금까지 여러 해를 거쳐 자조금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많은 어려움 양봉농가의 이해와 홍보의 부족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첫발을 내딛은 자조금 위원회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갈길이 멀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자”고 말하는 남진선 위원장의 지휘아래 지금의 계획을 앞으로 실천하고 협회의 근본적인 자조금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회의 막을 내렸다.